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및 실태 변화에 관한 연구

박정식*, 이정영**, 장우영***

A Study on the Change of Optician's perception and Actual conditions on Eyewear Dispensing

Jeong-Sik Park*, Jeong-Yeong Lee, Woo-Yeong Jang

요 약

본 연구는 안경조정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및 실태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안경사 업무 중 안경조정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조정에 있어서 비용의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가 고객뿐만 아니라 안경사에게서도 나타났다.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 불편감 해소에 대한 부담 및 조정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다리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들의 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경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recognition and status changes of optician for glasses fitting. It based on a survey results of twice in relation to the glasses fitt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atio of glasses fitting about optician operation appeared to increase gradually. The positive awareness change appeared from the customer and optician about the cost charging about the glasses fitting. In the case of a plastic glasses, the burden for the inconvenience feeling and fitting frequency showed an increase with relation to the temple fitting. To reduce the burden of glasses fitting, The continuous education for the correct glasses usage need.

▶ Keyword : 안경(Glasses), 조정(Dispensing), 안경사(Optician)

*제1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 투고일 : 2014. 6. 30. 심사일 : 2014. 7. 30. 게재확정일 : 2014. 8. 30.

I. 서론

1984년 대구보건전문대학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안경광학과가 대학교육을 시작으로 첨단화 된 교육과정[1]을 중심으로 약 50여개 대학에서 매년 2,000여명의 안경광학과 졸업생을 배출, 안경산업 현장에 공급[2]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14년 12월 제27회 안경사 국가고시룰 치를 정도로 그동안 안경사는 국민 안보건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정확하고 편안한 안경처방을 위해서는 자각적 및 타각적 굴절검사[3] 등 다양한 굴절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안경사는 의료기사로서 법률상 그 업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가 정의되고 시행되어 왔다. 이와 같은 규정은 최근 실질적인 안경사 업무와 맞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최근 안경사단독법을 만들기 위해 ‘안경사법 제정안’ 국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안경사단독법의 핵심 내용은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여 안경사의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안경사의 정의를 안경의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와 더불어 시력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경사의 업무범위 규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안경사의 다양한 문제점[4]을 해결하고 안경사의 권익을 회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경사의 업무 스트레스[5] 경감, 직무만족도 개선[6-7] 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안경관련 부속 품(케이스, 안경닦이 등)에 대한 유료화, 안경조정[8-9]에 대한 비용 유료화 등 지금까지 안경사의 고유한 업무이자 기술 분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으며,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안경 관련 분야에 대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경조정과 관련하여 안경사들의 인식 및 조정 실태에 대한 변화를 조사하고자 2011년[10]과 2014년에 각각 동일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변화를 조사하였다. 또 이러한 변화의 조사를 통하여 향후 안경사들이 노력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II. 방법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안경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경사들의 안경조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설문조사를 2011년과 2014년에 실시하여 그 변화를 조사하였다.

2011년 설문조사에서는 안경사 127명을, 2014년에는 101명의 안경사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주된 설문 분야는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변화, 안경조정 실태의 변화 등 일정 기간 동안 안경사들의 조정과 관련하여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상과 같이 조사 시기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의 변화를 바탕으로 그 동안의 안경사들의 조정에 대한 인식 및 실태의 변화 조사하고자 하였다.

III. 결과

1.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변화

안경원을 방문하는 고객들 중 순수하게 안경테 조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의 비율에 대한 질문에서 약 10%의 고객이라고 답한 안경사가 2011년 약 40%에서 2014년 약 30%로 감소하였으나, 약 20%의 고객이라고 답한 안경사가 2011년 35%에서 2014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안경테 조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고객 비율이 30%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1년 17%에서 2014년 24%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부터 안경사 업무 중 안경조정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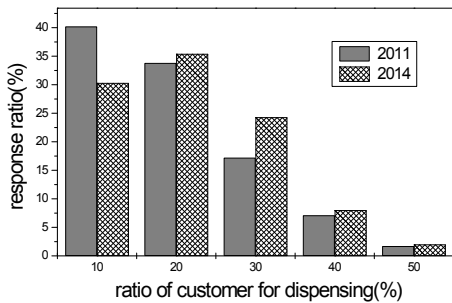


Fig. 1. Changes of customer ratio for only eyewear dispensing.

안경 조정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이 조정 후 조정에 대한 요금 지불 의사를 밝히는 고객의 비율의 변화에 있어서는 약 10% 고객이라고 답한 비율이 2011년 약 56%에서 2014년 48%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요금 지불 의사를 밝히는 고객 비율이 30% 라고 답한 비율이 2011년 약 8%에서 2014년 약 19%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2) 그만큼 안경 조정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경업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한편 안경조정을 목적으로 방문한 고객에 대해 조정 후 그 비용을 고객에게 요구해 본 적이 있는 가라는 질문에서는 2011년 약 55%의 안경사는 비용을 청구해 보았다고 응답하였으나 2014년에는 67% 정도로 응답하였다.(Fig. 3) 이상의 조사로부터 안경조정에 있어서 비용 청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고객뿐만 아니라 안경사에게서도 점차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안경테 조정에 대한 비용을 청구한다면

그 적정 비용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1년 약 75% 정도의 안경사가 5,000원 정도로 응답했으나 2014년에는 40% 정도로 감소하였다. 한편 조정 비용으로 10,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2011년 약 23%에서 2014년 약 45%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000원 이상으로 응답하는 경우도 다소 나타났다.(Fig. 4) 즉 안경사들이 안경조정에 대한 업무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대신 비용 청구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10,000원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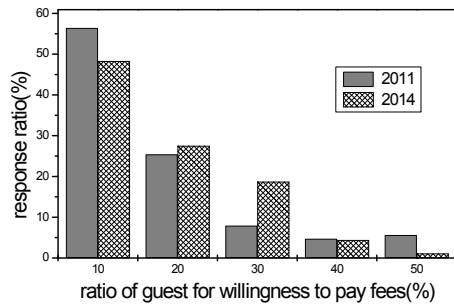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customer ratio of willing to payment to eyewear dispen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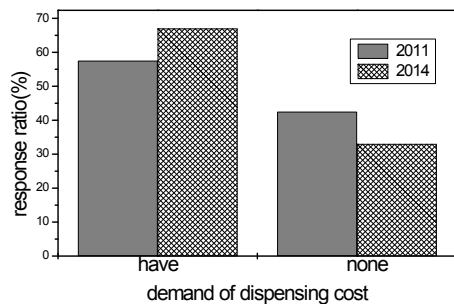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cost requirements optician ratio to eyewear dispen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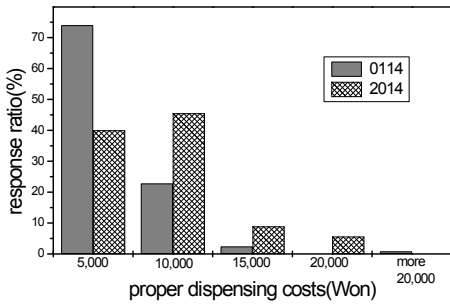


Fig. 4. Changes of Reasonable cost to eyewear dispensing.

‘안경조정에 대한 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안경사의 단합 비율이 약 27%에서 22%로 다소 감소한 반면 고객의 인식 변화는 약 41%에서 44%로 관련법의 제정에 대한 요구는 약 29%에서 34%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전히 안경조정에 대한 고객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고객인식변화를 위한 안경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Fig. 5)

이상과 같이 안경조정은 안경사의 고유 직무이자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고객인식의 부족으로 제대로 기술적, 경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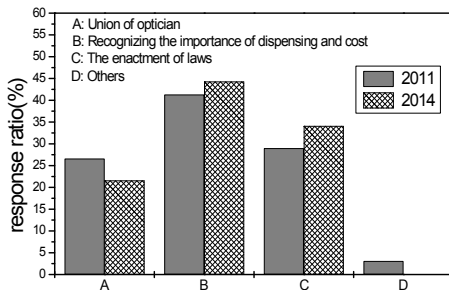


Fig. 5. Changes for Realization conversion method of the cost to eyewear dispensing.

안경사들이 전체 업무 중 조정관련 업무의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업무의 30% 또는 50% 정도라고 답한 비율이 2011년 약 33%에서 2014년 약 17%로 감소한 반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40% 정도로 답한 비율은 2011년 약 14%에서 2014년 약 3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즉 안경조정에 대한 업무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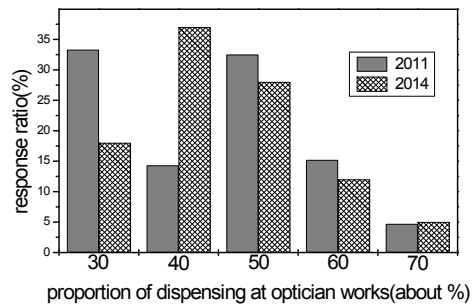


Fig. 6. Changes of eyewear dispensing proportion in the optition works.

2. 안경조정 실태의 변화

다음으로 안경테의 조정에 있어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금속테의 경우 가장 많이 조정하게 되는 부분은 지난 2011년과 2014년 모두 코받침지대가 약 75%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기타 부위에 대한 조정은 매우 미미한 정도였다.(Fig. 7) 반면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에는 여전히 다리를 조정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다리 조정에 대한 빈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이와 같이 고객이 안경테의 사용 중 조정하게 되는 부분이 안경테의 재료에 따라 크게 다르며, 최근 플라스틱 안경테의 사용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플라스틱 안경테 다리조정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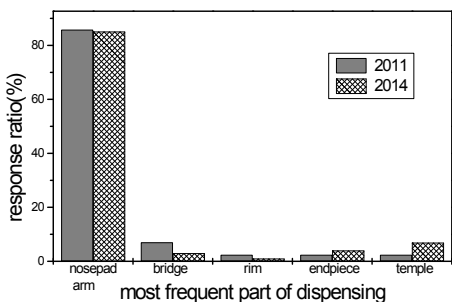


Fig. 7. Changes of dispensing frequency according to parts in the metal frame.

금속안경테의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 중 문제점이 있는 안경테를 조정할 경우 안경사가 가장 부담을 느끼는 조정 부위는 코받침지지대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비중은 지난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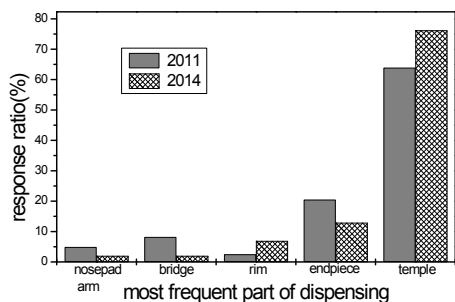


Fig. 8. Changes of dispensing frequency according to parts in the plastic frame.

그러나 플라스틱 안경테인 경우에는 조정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으로 지난 2011년에는 다리 와 앤드피스의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2014년에는 다리부분의 조정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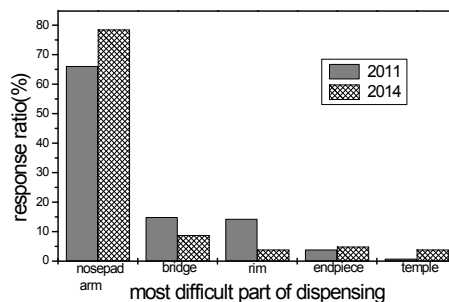


Fig. 9. Changes of most difficult parts in the dispensing of metal frame.

즉 지난 3년간 조정 부위에 따른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금속안경테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에는 다리 부분의 조정에 대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플라스틱 안경테의 다리 부분 조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속안경테의 사용에 따른 불편감의 증상 종류에 따른 조정의 난이도에 대한 설문 결과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받침지지대의 조정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한편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에는 홀러내림, 귀 부분 압박,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률은 다소 감소한 반면, 다리부분 압박을 호소하는 경우에 대한 부담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2) 즉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 불편감을 호소하는 부분의 해소에 대한 부담 및 조정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모두 다리 부분에 대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부분의 조정에 대한 다양한 검토 및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안경테 조정을 위해 방문한 고객에 대해 올바른 안경 조정 후 안경의 착용 및 사용 방법에 대한 다양한 설명과 교육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2011년과 2014년을

비교해 보면 그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Fig. 13) 이상과 같이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부담이 증가한 것에 비하여, 소비자가 빠르게 안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할 점에 대한 교육과 안내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경사들의 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경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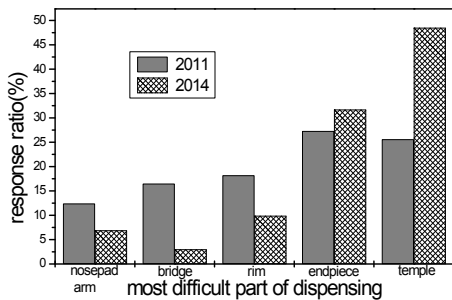


Fig. 10. Changes of most difficult parts in the dispensing of plastic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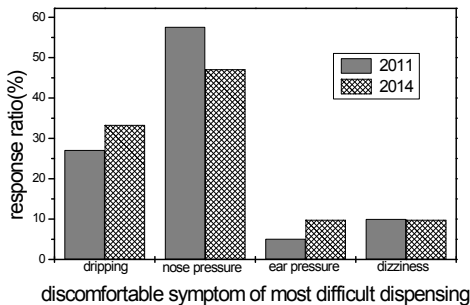


Fig. 11. Changes of eyewear dispensing level on kind of the complains of metal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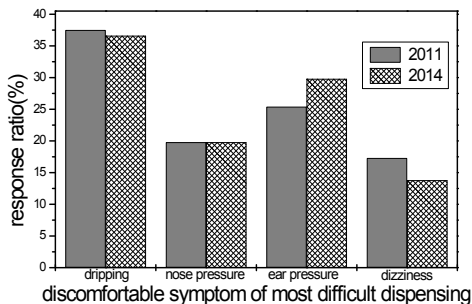


Fig. 12. Changes of eyewear dispensing level on kind of the complains of plastic fr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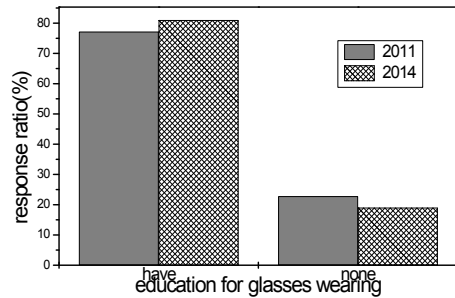


Fig. 13. Changes of the correct wear and use method education of eyewear.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안경조정과 관련하여 2011년과 2014년에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의 인식 및 실태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안경사 업무 중 안경조정에 대한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조정에 있어서 비용의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고객뿐만 아니라 안경사에 모두에서 나타났다.

안경테의 불편감 해소에 대한 부담 및 조정 빈도에 대한 조사 결과 특히 플라스틱 안경테의 경우 다리 부분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사들의 조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안경사용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류경호, 김창식, “전문안경사를 위한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개선과 개발”, 대한시과학회지, 15권 3호, p. 209-216, 2013.
- [2] 오영호, “우리나라 안경사 인력의 수급전망과 정책방향”, 한국안광학회지, 15권 4호, p. 1-7, 2010.
- [3] 이익한, 김재도, 김대현, 김진숙, 황정희, “안경처방을 위한 안경사의 타각적 굴절검사 타당성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13권 1호, p. 21-31, 2011.
- [4] 신효순, 김재성, 박상희, 박상철, “부산지역 안경사 복지관련 실태조사”, 대한시과학회지, 15권 4호, p. 361-375, 2013.
- [5] 예기훈, 김세진, 최가을, 홍경희, 박지현, “안경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14권 3호, p. 163-172, 2012.
- [6] 이옥진, 박상철, 이승원, 전영기, 강성수, 이원진, “안경사 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교육의 필요도”, 한국안광학회지, 14권 4호, p. 27-31, 2009.
- [7] 김세진, 박지현, 예기훈, “안경사의 직무만족도와 이직률에 관한 연구”, 대한시과학회지, 14권 4호, p. 323-330, 2012.
- [8] 김효정, 이군자, 마기중, 정수정, 오현진, “안경 착용자의 불편감 조사”, 대한시과학회지, 2권 2호, p. 197-203, 2000.
- [9] 조영래, 유근창, 박현주, “안경작용자의 휘팅 실태 조사”, 대한시과학회지, 2권 2호, p. 205-209, 2000.
- [10] 박정식, 이정영, 장우영, “안경조정에 대한 안경사 및 고객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컨버전스학회지, 4권 1호, p. 1-5, 2011.